

다니엘서 - 백칠십팔번째

예언적 유사성: 말세에 전개되는 다니엘서 11장

Jeff Pippenger

2024-04-08

다니엘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미국에서 곧 제정될 일요일 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가엘이 일어나시고 인간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될 때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같은 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역사도 나타낸다.

그러나 그에게 맞서 오는 자는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요, 아무도 그의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 의해 그 땅이 황폐해지리라. 또 그는 온 왕국의 힘을 거느리고 들어가려 얼굴을 굳게 하고, 정직한 자들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는 또한 그에게 여인들의 딸을 주어 그녀를 타락시키려 하겠으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는 섬들을 향해 얼굴을 돌려 많은 섬들을 취하리라. 그러나 자기 편의 한 귀인이 그가 가한 수치를 그치게 할 것이며, 자신은 수치를 입지 않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리리라. 그때에 그는 자기 땅의 요새를 향해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는 비틀거리다 넘어져 사라져 다시는 찾아지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1:16-19.

화이트 여사가 다니엘서 11장의 최종 성취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는 "이 예언에서 성취된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41절부터 45절은 이러한 절들에 담긴 예언적 역사를 반복한다. 그 절들은 이교 로마가 먼저 세 개의 지리적 지역을 정복하여 세계를 장악했을 때 성취되었다.

이집트는 북방의 왕 안티오쿠스 앞에 설 수 없었으나, 이제 그를 치러 온 로마인들 앞에서는 안티오쿠스도 설 수 없었다. 더 이상 어떤 왕국도 이 떠오르는 세력에 대항할 수 없었다. 주전 65년 폼페이우스가 안티오쿠스 아시아티쿠스로부터 그의 영토를 빼앗고 시리아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켰을 때, 시리아는 정복되어 로마 제국에 추가되었다.

바로 그 동일한 세력이 또한 성지에 서서 그것을 삼키게 되어 있었다. 로마는 주전 162년에 동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예언의 연대기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유대를 실제 정복하여 그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것은 주전 63년에 이르러서였으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폼페이우스가 폰투스의 왕 미트리다테스에 대한 원정에서 돌아오자, 두 경쟁자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불루스가 유대의 왕위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그들의 분쟁은 폼페이우스 앞에 제기되었고, 그는 곧 아리스토불루스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간파했지만, 오랫동안 염원해 온 아라비아 원정을 마칠 때까지 이 문제의 결정을 미루고자 했으며, 그 뒤 돌아와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들의 사태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폼페이우스의 진의를 간파한 아리스토불루스는 서둘러 유대로 돌아가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강력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으며, 자신의 왕위가 다른 이에게 귀속될 것을 예견하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왕위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폼페이우스는 그 도주자를 바짝 추격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자, 자신의 행보를 후회하기 시작한 아리스토틀루스가 그를 맞으러 나와 전면적인 복종과 거액의 금전을 약속함으로써 일을 수습하려 했다. 폼페이우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가비니우스를 병력 일부의 지휘관으로 보내 돈을 받게 했다. 그러나 그 부장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성벽 위에서 도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식의 기만을 좌시하지 않으려던 폼페이우스는 곁에 두고 있던 아리스토틀루스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곧바로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했다. 아리스토틀루스의 지지자들은 그곳을 방어하자고 했고, 히르카누스의 지지자들은 성문을 열자고 했다. 후자가 다수였고 우세하여, 폼페이우스는 아무 방해 없이 도시로 들어갔다. 이에 아리스토틀루스의 추종자들은 성전 산으로 물러났고, 폼페이우스가 그곳을 함락시키려 결심한 만큼이나 단호하게 그곳을 지키기로 작정했다. 석 달이 지나자 돌격이 가능할 만큼 성벽에 돌파구가 뚫렸고, 그곳은 칼끝으로 함락되었다. 이어진 참혹한 학살에서 1만 2천 명이 살해되었다.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마침 신성한 예식을 집전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사방에서 벼들이 도륙당하고 때로는 자신의 피가 제물의 피와 뒤섞이는데도, 주위의 광란 같은 소요를 의식하지 않은 듯, 침착한 손놀림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평소의 직무를 계속하는 광경은 실로 가슴 아픈 것이었다.

전쟁을 종식시킨 뒤,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고, 유대의 관할 아래 있던 여러 도시를 시리아의 관할로 이관했으며, 유대인들에게 조공을 부과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정복에 의해 처음으로, '영화로운 땅'을 완전히 삼켜 버릴 때까지 철권으로 움켜질 그 권력의 수중에 들어갔다.

'17절. 그는 그의 온 왕국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려 굳게 마음을 정하고, 정직한 자들이 그와 함께할 것이다; 그가 이같이 행할 것이요, 그는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타락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하지도 않을 것이다.'

뉴턴 주교는 이 구절의 뜻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또 다른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는 또한 온 왕국에 무력으로 들어가려 굳게 결심할 것이다.' 16절은 로마인들이 시리아와 유대를 정복한 데까지 서술한다. 로마는 그 이전에 이미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를 정복했다. 이제 로마의 권세에 복속되지 않은 알렉산더의 '온 왕국' 가운데 남아 있던 것은 이집트뿐이었고, 그 권세는 이제 그 나라에 무력으로 들어가려 결심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아울레테스는 기원전 51년에 죽었다. 그는 이집트의 왕관과 왕국을 그의 맏아들과 딸인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남겼다. 그의 유언에는 그들이 서로 결혼하여 공동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그들이 어렸기 때문에 로마인의 후견 아래 두어졌다. 로마 국민은 그 위탁을 받아들였고, 폼페이우스를 이집트의 젊은 상속자들의 후견인으로 임명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사이에 불화가 빚어져, 두 장군 사이에 유명한 파르살루스 전투가 벌어졌다. 폼페이우스는 패배하고 이집트로 달아났다. 카이사르는 곧바로 그를 뒤쫓아 그곳으로 향했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폼페이우스는 자신이 후견인으로 임명되었던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비열하게 살해되었다. 이에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후견인으로 폼페이우스에게 주어졌던 직을 자신이 맡았다. 그는 이집트가 내부 혼란으로 들끓고 있음을 알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서로 적대하게 되었고, 그녀는 통치에서 자신의 몫을 빼앗긴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기병 800명과 보병 3,200명으로 이루어진 소수 병력과 함께 주저 없이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하여, 분쟁을 직접 다루고 그 해결에 나섰다. 혼란이 날로 심해지자, 카이사르는 자신의 소수 병력으로는 입지를 지키기에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 계절에 부는 북풍 때문에 이집트를 떠날 수 없었으므로 아시아로 전령을 보내 그 일대에 있던 모든 군대가 가능한 한 빨리 구원하러 오도록 명했다.

그는 지극히 오만한 태도로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군대를 해산하고, 서로 간의 분쟁의 조정을 받기 위해 그의 앞에 출두하며, 그의 결정에 따를 것을 명했다. 이집트가 독립된 왕국이었기에, 이 오만한 명령은 그 왕권의 존엄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졌고, 이에 격분한 이집트인들은 무기를 들었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들의 아버지 아울레테스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며, 아울레테스는 자녀들을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의 후견 아래에 두었고 그 전체 권한이 이제 집정관인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후견인으로서 자신이 그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마침내 그 사건이 그의 앞에 회부되었고, 각 당사자의 사건을 변론할 변호인들이 임명되었다. 위대한 로마의 정복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던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미모가 그녀가 고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변호인보다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몰래 그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녀는 다음과 같은 책략을 썼다. 옷보따리 속에 온몸을 길게 누운 다음, 그녀의 시칠리아인 하인 아폴로도로스가 그것을 천으로 싸고 가죽끈으로 묶어, 헤라클레스 같은 어깨에 메고 카이사르의 거처로 향했다. 로마 장군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하며 그는 성채의 문으로 들어가는 허락을 받아, 카이사르의 앞에 나아가 그 짐을 그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카이사르가 이 살아 있는 보따리를 풀었을 때, 보라!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가 그의 앞에서 있었다. 그는 그 책략을 못마땅해하기는커녕,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묘사된 성격의 사람이었으므로, 롤랭의 말에 따르면, 그토록 아름다운 사람을 처음 본 순간 그녀가 바라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카이사르는 마침내 유언의 취지에 따라 남매가 공동으로 왕위를 차지하도록 결정했다. 국정의 최고 대신 포티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왕위에서 축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에, 그녀의 복위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했다. 그는 따라서 민중 사이에 카이사르가 결국 클레오파트라에게 단독 권력을 부여할 심산이라고 넌지시 퍼뜨려, 카이사르에 대한 시기와 적의를 부추기기 시작했다. 곧 공공연한 반란이 뒤따랐다. 아킬라스는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카이사르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몰아내기 위해 진군했다. 카이사르는 소수의 병력을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 능숙하게 배치하여 그들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집트인들은 그의 함대를 파괴하려 했다. 그는 그들의 함대를 불태워 응수했다. 불타는 몇몇 선박이 부두 가까이로 떠밀려 오면서 도시의 여러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고, 거의 4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소장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되었다.

전쟁의 위협이 더욱 커지자, 카이사르는 인근 모든 나라에 원조를 요청했다. 소아시아에서 그의 원조를 위해 대규모 함대가 도착했다. 미트리다테스는 시리아와 킬리키아에서 모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다. 이두매 사람 안티파테르는 유대인 3,000명을 이끌고 그와 합류했다. 이집트로 통하는 관문들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군대가 방해받지 않고 지나가도록 허용했다. 그들의 이런 협력이 없었더라면 전체 계획은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이다. 이 군대의 도착이 승부를 결정지었다. 나일 강 근처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그 결과 카이사르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도주를 시도하던 프톨레마이오스는 강에서 익사했다. 그 뒤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전역이 승자에게 복속했다. 이제 로마는 알렉산드로스의 원래 왕국 전체에 진입하여 이를 흡수했다.

본문의 '정직한 자들'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이미 언급된 도움을 그에게 제공하였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하였을 것이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원전 47년에 애굽을 완전히 자신의 권세 아래 굴복시켰다.

"여자들의 딸, 그녀를 타락시키며."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에게 품었던 정열(그녀는 그에게 아들 하나를 낳아 주었다)은 그가 이집트 전쟁처럼 위험한 원정을 감행한 유일한 이유로 역사가에 의해 지목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이집트에 머물렀고, 방탕한 여왕과 밤새도록 연회를 벌이며 흥청망청했다. "그러나," 예언자는 말했다,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뒤 클레오파트라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적인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고 로마를 상대로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18절. 이 뒤에 그는 얼굴을 섬들로 돌려 많은 지역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편을 위한 한 지휘관이 그가 가한 모욕을 그치게 하고, 자신은 치욕을 당하지 않은 채 그 모욕을 그에게 되돌릴 것이다.

김메리아 보스포루스의 왕 파르나케스와의 전쟁이 마침내 그를 이집트에서 떠나게 했다. Prideaux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적이 있던 곳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에게도 그들에게도 잠시의 휴식도 주지 않고 즉시 공격을 가해, 그들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친구에게 다음 세 단어로 적어 보냈다: Veni, vidi, vici; 나는 왔고, 보았고, 이겼다." 이 구절의 후반부는 다소 모호하며, 그 적용에 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카이사르의 생애 더 이른 시기에 적용하여, 폼페이와의 다툼에서 그 성취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언 속에 앞뒤로 분명히 규정된 사건들은, 다음 절에 제시된 대로 파르나케스에 대한 승리와 로마에서의 카이사르의 죽음 사이에서 이 부분 예언의 성취를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 시기에 대한 보다 충실한 역사 기록이 밝혀진다면, 이 구절의 적용을 혼란 없이 만들어 줄 사건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19절. 그 후 그는 자기 나라의 요새를 향해 얼굴을 돌릴 것이나, 비틀거리며 넘어져 찾을 수 없게 되리라.'

"이 정복 이후, 가이사는 폼페이 당파의 마지막 남은 잔존 세력, 곧 아프리카의 카토와 스키피오, 그리고 스페인의 라비에누스와 바루스를 패배시켰다. 로마, 곧 '자기 땅의 요새'로 돌아온 그는 종신 독재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밖에도 그를 사실상 제국 전체의 절대적 군주가 되게 하는 여러 권세와 영예가 그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가 비틀거리 넘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표현은 그의 몰락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우연히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돌연하고도 뜻밖의 것이리라는 점을 내포한다. 그리고 과연, 오백 차례의 전투를 치러 승리하고, 일천 개의 도시를 점령하며, 백십구만 이천 명을 죽인 이 사람은, 전투의 소음과 투쟁의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길이 평탄하고 꽃으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하던 때, 그리고 위험이 멀리 떠나 있다고 여겨지던 바로 그때에 쓰러졌다. 이는 그가 원로원 회의장 안에서 자기 황금 보좌에 앉아, 그 기관의 손에서 왕의 칭호를 받으려 할 때, 배신의 단검이 갑자기 그의 심장을 찔렀기 때문이다. 카시우스와 브루투스과 그 밖의 공모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스물세 군데의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이처럼 그는 갑자기 비틀거리 넘어졌으며,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기원전 44년이였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258-264.

북방 왕인 이교 로마가 왕좌 위에 세워지는 역사적 성취는, 곧 도래할 일요일 법에서 이루어지는 삼중 연합 가운데 현대 로마가 즉위하는 역사를 예표하는 역사이다. 이 역사는 또한 30절부터 36절까지에서 예표되었는데, 그 구절들은 538년에 교황권이 처음으로 왕좌 위에 세워졌을 때를 밝혀 준다. 16절부터 19절까지와 31절부터 36절까지는 둘 다 두로의 음녀의 마지막 흥망을 나타낸다. 그 역사는 또한 5절부터 9절까지에서도 제시되었는데, 그때 첫 번째 북방 왕이 세 지리적 지역을 정복한 후 세워졌다. 그 후 그는 남방 왕과 조약을 맺었으나 그 조약을 깨뜨렸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남방 왕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으며, 북방 왕은 애굽의 포로 상태에서 죽었다.

5절부터 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36절까지는 40절부터 45절에서 성취되는 세 가지 예언적 흐름을 제시한다. 화이트 자매가 "이 예언에서 성취된 역사 중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것은 사실상 이 장 전체가 40절부터 45절을 설명한다는 뜻이었다. 20절부터 22절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가리키며, 따라서 그의 탄생은 1798년과 1989년 모두에서 끝의 때를 표상하고, 이어서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은 1844년 10월 22일과 일요일법을 표상한다.

23절은 마카베오 반란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의 "동맹"을 지목한다. 그 역사에서의 "동맹"은 기원전 161년과 기원전 158년이라는 날짜로 나타난다. 마카베오 역사는 유대인들이 주도하여 로마와 마카베오 유대인들 사이에 맺은 "동맹"에서 시작되는 내적 흐름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난다. 물론 23절은 21절과 22절 뒤에 이어지는데, 21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며 그것은 예언적인 종말의 때이고, 22절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그것은 일요일 법령을 상징한다.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은 가이사(로마)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했고, 23절의 '동맹'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섬기기로 선택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던 것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난다. 십자가로 상징된 유대인의 종결 뒤에는 유대인들의 로마와의 관계의 시작이 뒤따른다.

24절부터 30절은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부터 서기 330년에 수도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전될 때까지, 이교 로마가 최고 권세로 통치하던 360년을 묘사한다. 이 360년의 기간은 교황 로마가 최고 권세로 통치했던 1260년을 예표하며, 이 둘은 함께 41절에서 시작하여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일어나는 삼중 연합을 거쳐 은혜의 시간이

달힐 때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11장에 나오는 모든 예언적 역사들은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과 일치하지만, '마지막 날들과 관련된 다니엘의 예언의 그 부분'은 40절에 묘사된 1989년의 마지막 때로부터 41절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예언적 역사이다. 40절에서 공백으로 남겨진 역사는 때가 가까울 때, 곧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언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석들이 있다. 이 말씀을 탐구하는 이들은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타락한 식욕을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과 관련된 것들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깊이 파고드는 데 따르는 긴장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될 때, 신자들은 전혀 다른 신앙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열린 문을 엿보는 듯한 광경을 허락받아, 마음과 생각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상으로 주어질 복을 누리기 위해 모두가 반드시 길러야 할 품성이 깊이 각인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것을 이해하고자 겸손하고 온유하게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책에는 영생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가득한 내용이 너무도 많아서, 이를 열심히 읽고 탐구하는 모든 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을 받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된다—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고 확고하다는 것이다.

하늘 세계와 이 세상 사이에는 놀라운 연결이 보인다. 다니엘에게 계시된 것들은 그 후 밤모 섬에서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로 보완되었다. 이 두 책은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다니엘은 두 번 물었다. '마지막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시되, 다니엘아, 너는 네 길을 가라. 이 말들은 끝의 때까지 감추어져 봉함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으려니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한 자들 가운데는 깨닫는 자가 없으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지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너는 안식하리니, 끝날에 네 분깃에 서리라.'

책의 인봉을 떼고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의 계시를 주신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셨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정해진 자리에 서서,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우리 세상에 선포될 종말의 때까지 봉인되어 있던 자신의 증언을 했다. 이러한 일들은 이 마지막 때에

무한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동안,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인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그러하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메시지의 선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봉인이 풀리며, 우리를 이 땅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로 이끌어 간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말세의 위험 한가운데 살고 있음을 명심할 것인가? 다니엘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이것들을 가르치라."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4, 115.